

260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018. 10. 15



서울시 혁신형 중소기업의 다양성과 정책방향

오은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

발행인 : 서왕진

편집인 : 최 봉

발행처 :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twitter.com/seoulinstitute

www.facebook.com/SeoulInstitute/

※ 이 정책리포트는 서울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서울시 혁신형 중소기업 특성과 활성화 방안」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 정책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시 혁신형 중소기업의 다양성과 정책방향

	요약	3
I.	혁신형 중소기업의 개념과 중요성	4
II.	서울시 혁신 인증기업의 특징	6
III.	서울시 혁신 인증기업의 다양성과 정책수요	11
IV.	정책제언	17

오은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037
ejoh@si.re.kr

성장을 하락, 일자리 감소 등에 대한 타개책으로 혁신성장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서울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서울에 있는 우수한 혁신자원(인력, 연구소, 문화 편의시설 등) 때문에 서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는 서울에 소재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고충사항을 살펴보고, 기업 특성에 맞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서울의 혁신형 중소기업은 다른 지역보다 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왕성하게 혁신활동 수행 중

서울에는 다른 지역보다 초창기 혁신기업인 벤처 인증기업(인증기업의 80.6%)이 많다. 경기도와 전국이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는 것과 달리, 서울 혁신형 중소기업은 콘텐츠·IT 분야(39.5%)와 제조업(33.6%)에 골고루 분포해 있다. 또한, 서울 혁신형 중소기업은 더 많은 R&D 투자를 감행했으며, 제품혁신이나 공정혁신을 왕성하게 추진한 기업의 74.5%가 혁신 목표를 달성하였다.

신생 기업일수록 개방형 혁신 태도 보이며 외부와 협력네트워크 구축 지원 요구

혁신목표를 달성한 기업은 실패한 기업에 비해 다른 기관과 더 많이 협력하고 컨설팅기관이나 연구소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한 혁신 동기를 가진 신생 기업(창업 후 7년 이하 기업)은 기업 내부의 자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과 더 많이 공동연구하고, 기업, 컨설팅·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과 정보교류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생 기업은 다른 성장단계에 속한 기업과 달리 3순위 혁신저해요인으로 '협력 파트너의 부재'와 '과다한 혁신비용'을 주로 꼽았다.

서울시는 기업 다양성과 혁신 특성 고려한 맞춤형 정책 시행이 필요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여러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혁신형 중소기업만을 위한 정책은 미흡한 편이다. 특히, 신생 기업이 다른 성장단계 기업보다 오히려 정부 지원을 덜 받고 있었다. 혁신 창출의 관점에서 신생 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R&D 자금과 인력을 지원하는 동시에, 기업의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신생 기업에는 R&D 협력파트너를 연계해주는 사업을, 안정기나 성숙기 기업에는 시장수요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I. 혁신형 중소기업의 개념과 중요성

혁신형 중소기업은 혁신생태계와 성장사다리 구축의 필수 요건

혁신형 중소기업은 지역에 신성장동력을 제공

- 혁신형 중소기업은 신기술이나 첨단제품을 개발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 혁신형 기업의 주된 경쟁 기반은 혁신 제품이나 서비스의 보유 여부로 결정
 - 혁신형 기업은 IT나 바이오와 같은 첨단산업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 등 모든 산업에서 활동 중
- 혁신형 중소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산업생태계의 혁신력 강화, 경제 규모의 확장 등을 전인
 - 혁신형 기업은 기존 제품을 개선하기도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경제의 전체 규모를 확대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 혁신형 기업은 다른 기업에 신기술의 중간 투입물을 공급하는 역할도 수행하므로, 혁신형 기업의 전후방에 연계된 공급업체·고객·협력업체의 혁신성을 강화시켜 산업생태계의 한 단계 도약을 유도
 - 혁신형 기업은 산업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 내 총부가가치를 증가시키고 다른 지역으로부터 기업과 인재의 유입을 일으켜 경제의 외연 확장에 기여



그림 1. 혁신형 기업의 경제적 공헌

혁신형 중소기업은 창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가는 ‘중간 성장사다리’ 역할을 수행

- 기술 우위를 가진 혁신형 중소기업은 일반 중소기업보다 중기업 등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편
- 기업은 스타트업 - 중소기업 - 중기업/중견기업 등의 과정을 거쳐 성장
- 일반 중소기업보다 혁신형 중소기업이 기술 우위를 갖고 있어 중기업/중견기업으로 올라가는 ‘중간 사다리’ 역할을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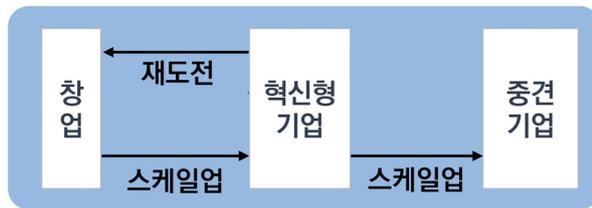


그림 2. 기업의 성장경로

혁신형 중소기업을 ‘벤처기업’ 인증기업과 ‘이노비즈’(inno-biz) 인증기업에 한정하여 분석¹⁾

-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R&D 부흥을 위하여 인증제도를 운영 중
- 대표적으로 벤처기업 인증과 이노비즈 인증이 있으며, 연구개발과 혁신노력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
- 벤처기업은 신생 기업 중심이며 이노비즈는 창업 후 3년 이상 기업도 가능
- 기업은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에 중복 신청 가능
- 혁신형 중소기업 정책은 R&D 이후 상업화로 가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무사히 건너서 안정적인 기업으로 성장토록 지원

1) 현재 중소기업 관련 인증으로는 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 인증 이외에 메인비즈 인증이 있는데, 마케팅·조직 혁신을 달성한 기업을 의미하는 메인비즈는 비기술 분야이므로 혁신형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 대상은 아님

II. 서울시 혁신 인증기업의 특징

서울은 벤처·신생 기업 비율 높아 ‘최초 혁신지’ 역할 수행²⁾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벤처기업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

- 서울 혁신 인증기업의 80.6%가 벤처기업
 - 상대적으로 초창기인 벤처기업의 비중이 서울은 80.6%로, 경기도(69.6%)나 전국 평균(72.5%)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
 - 서울은 벤처기업 비중은 높지만 성장한 이노비즈 기업의 비중은 40.8%로, 경기(49.4%)나 전국(46.4%)보다 낮은 비중
 - 서울 기업 중 벤처기업과 이노비즈 인증을 모두 받은 기업은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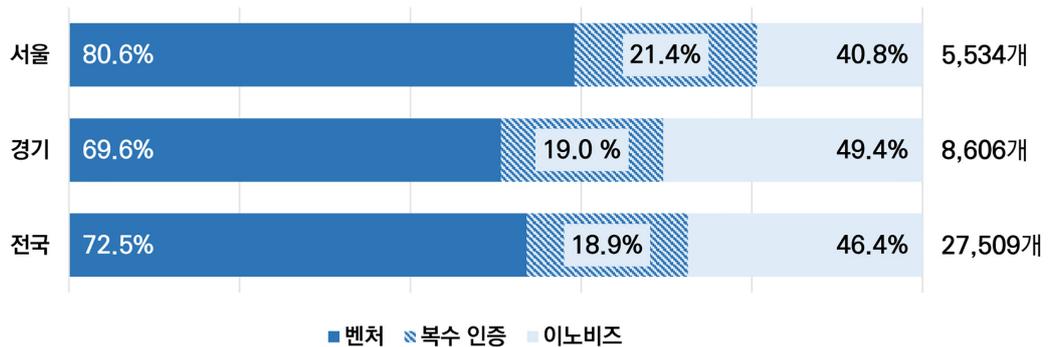


그림 3. 지역별 벤처기업과 이노비즈 인증 현황(2015)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DB 원자료 분석

- 서울은 다른 지역보다 젊은 기업을 더 많이 보유
 - 서울 인증기업 중 업력 5년 이하인 기업은 24.9%, 5~10년 이하인 기업은 27.2%로, 경기(23.1%, 24.5%)와 전국(23.2%, 25.1%)에 견줘 높은 비중을 차지
 - 20년 초과 기업의 비중은 서울이 9.4%, 경기도는 12.9%, 전국이 13.1%

2) II장(서울시 혁신 인증기업의 특징)의 내용은 ㈜한국기업데이터의 유료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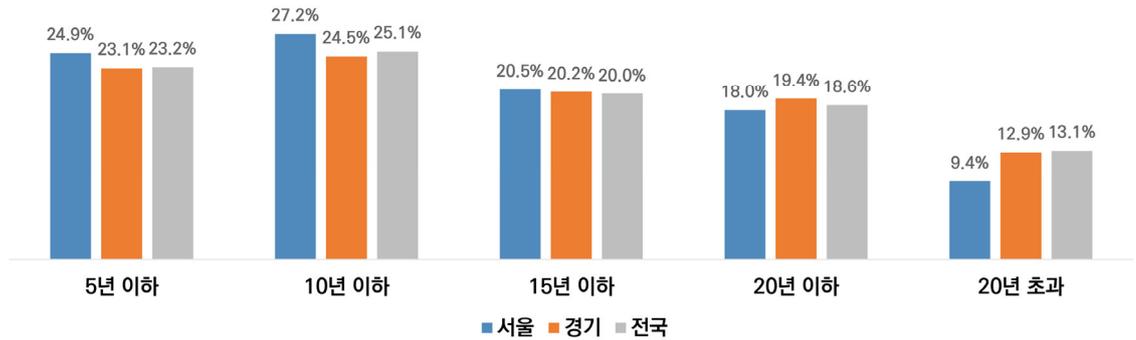


그림 4. 지역별 인증기업의 설립기간 현황(2015)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DB 원자료 분석

서울 혁신 인증기업은 여러 산업에서 더 많은 투자와 성과 창출

서울 혁신 인증기업은 여러 산업에 포진 중

- 서울 혁신 인증기업은 콘텐츠·IT 분야와 제조업에 고르게 분포
- 서울 혁신 인증기업의 39.5%가 산업대분류상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인 콘텐츠·IT 분야에 속해 있고 그다음은 33.6%인 제조업이 차지
- 이에 비해, 경기도 혁신기업은 대다수인 80.8%가 제조업에 속해 있고 19.2%만이 제조업이 아닌 다른 산업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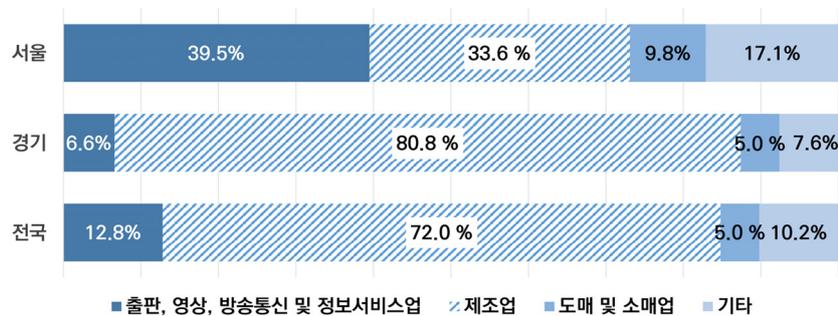


그림 5. 산업대분류별 인증기업의 분포(2015)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DB 원자료 분석

서울 혁신 인증기업은 왕성한 R&D 투자와 빠른 매출액 증가를 기록3)

- 서울의 혁신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미래 수익 창출을 위한 R&D 투자가 활발
 -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서울의 혁신 인증기업은 61.1%로 전국 혁신 기업(27.0%)이나 경기 혁신기업(23.5%)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
 - 서울 인증기업의 R&D 투자 비중은 61.1%, 비인증기업의 R&D 투자 비중은 49.1%로, 인증기업과 비인증기업 간 12% 차이
- 서울 혁신 인증기업의 매출액 증가율(2011~2015년)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5년간 매출액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서울 인증기업(16.3%)이 경기(13.4%)나 전국 (13.1%)의 인증기업보다 높은 수준
 - 서울-경기 등의 지역 간 격차도 있지만, 서울 내 혁신 인증기업과 비인증기업 간의 매출액 증가율 격차(1.94배)도 상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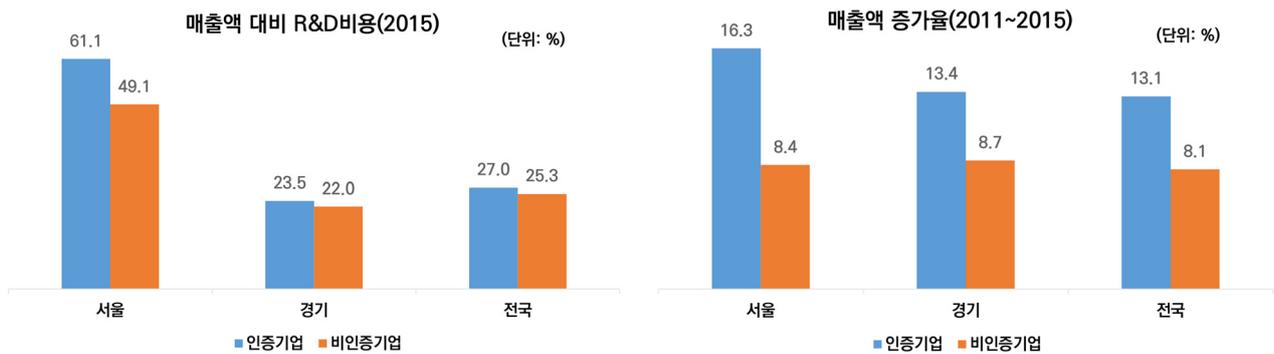


그림 6. 연구개발투자 비중과 매출액 증가율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DB 원자료 분석

3) 통계DB에 매출액과 R&D비용의 재무정보가 존재하는 기업은 비인증기업이더라도 R&D에 집중투자하거나 R&D 관련 매출을 신청한 기업이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가 과다 추정되므로 수치 해석에 주의가 필요

서울 혁신 인증기업은 강남·G밸리 등에 집중 분포

한국기업데이터 DB 분석 결과, 서울 혁신 인증기업의 약 60%가 G밸리, 강남권에 분포

- 인증기업의 사업체 수는 G밸리에 속해 있는 금천구가 1위, 구로구가 3위
 - 금천구(총 1,034개 업체, 18.7%) 다음으로, 강남구(898개, 16.2%), 구로구(714개, 12.9%), 서초구(494개, 8.9%), 영등포구(432개, 7.8%) 등의 순
- 인증기업의 종사자 수는 강남구가 1위
 - 강남구(29,532명, 20.1%) 다음으로, 금천구(25,142명, 17.1%), 구로구(19,301명, 13.2%), 서초구(13,587명, 9.3%), 영등포구(13,519명, 9.2%) 등의 순

최근 서대문구, 성북구, 마포구가 신생 혁신 지역으로 부상

- 혁신과 성과의 규모상으로는 G밸리·강남권 등 서울의 대표 혁신지역이 우세
 - 인증기업의 매출액으로는 강남구, 금천구, 구로구, 서초구 등의 순
 - 특히 수 기준으로는 금천구, 강남구, 구로구, 서초구, 송파구 등의 순
- 대표 혁신지역의 우세와 함께, 몇몇 신생 지역의 급성장이 확인
 - 인증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서대문구(27.6%), 성북구(25.8%), 동대문구(22.9%), 마포구(21.8%), 양천구(20.9%) 등의 순
 - 특히 수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성북구(24.8%), 서대문구(18.9%), 강북구(17.4%), 마포구(16.9%) 등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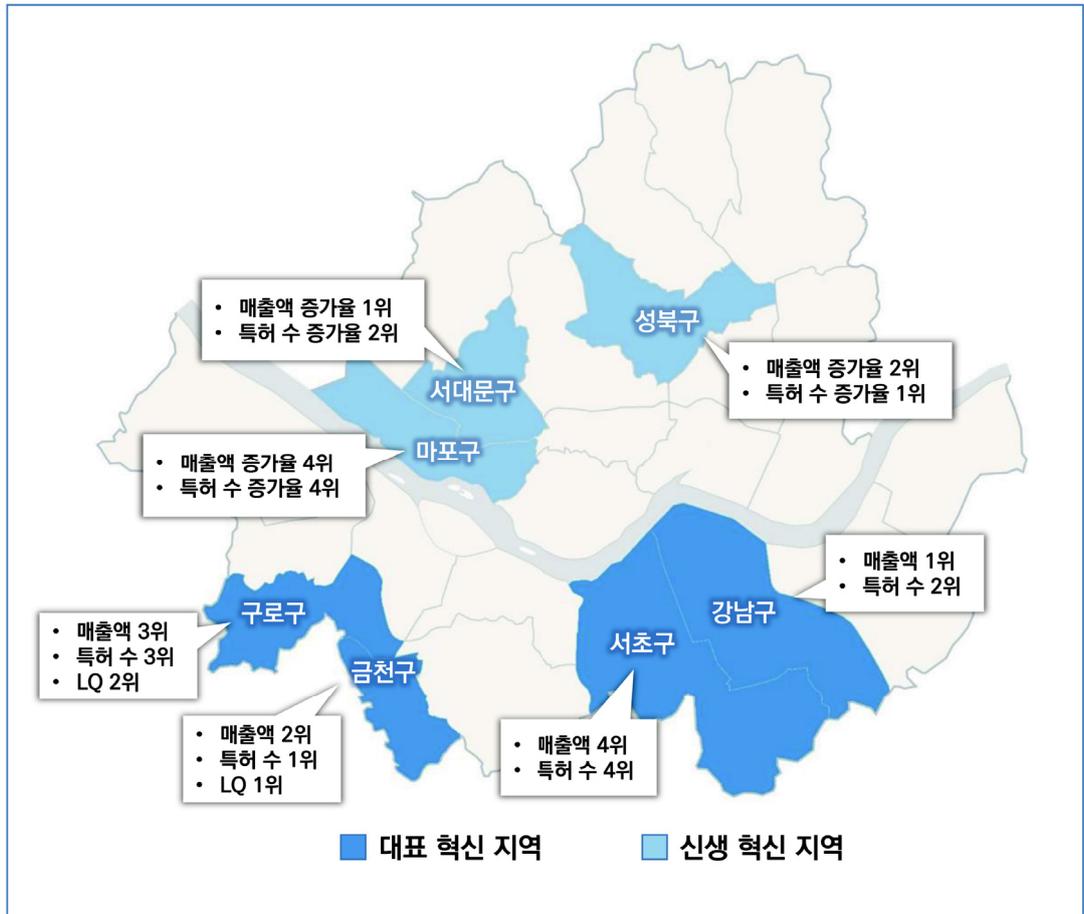


그림 7. 서울 혁신 인증기업의 자치구별 현황

주: 단년도 수치는 2015년 기준, 증가율 수치는 2011~2015년 기준

자료: 한국기업데이터 DB 원자료 분석

III. 서울시 혁신 인증기업의 다양성과 정책수요

서울 인증기업의 높은 혁신 성공률⁴⁾

혁신을 시도한 기업의 74.5%가 혁신목표를 달성

- 지난 3년간(2011~2013년), 서울 인증기업의 52.3%가 제품이나 공정 혁신을 시도
- 서울 인증기업의 52.3%(161개)는 적극적인 혁신노력을 시도했지만, 인증기업이면서 혁신 노력을 하지 않은 기업도 47.7%(147개)를 차지
- 혁신을 시도한 기업의 74.5%(161개 중 120개)가 혁신에 성공
- 혁신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기업의 비중은 25.5%(41개)



그림 8. 기업의 기술혁신 성공 여부(N=161)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한국기업혁신조사」 원자료 분석

혁신에 성공한 기업은 실패한 기업보다 더 많은 혁신자원을 투입⁵⁾

- 혁신성공 기업은 실패한 기업보다 더 많은 혁신비용을 지출
- 혁신성공 기업의 혁신투자비용은 약 10.9억 원으로, 혁신실패 기업(8.2억 원)의 1.3 배를 투입

4) III장(서울시 혁신 인증기업의 다양성과 정책수요)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한국기업혁신조사」 원자료에서 서울시 기업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5) 혁신 성공 또는 실패는 「한국기업혁신조사」 설문 17번 문항 “지난 3년간 귀사가 수행한 혁신활동 중...제품/서비스상품 혁신 또는 프로세스 혁신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까?”에 대한 답변(예/아니오)으로 판단

- 혁신에 성공한 기업은 실패한 기업보다 기술 성과 및 경제 성과가 더 양호
- 특허출원한 기업의 비율이 혁신성공 기업은 55.0%, 혁신실패 기업은 40.6%
- 혁신성공 기업의 고용증가율(5.6%)은 혁신실패 기업(3.2%)의 1.8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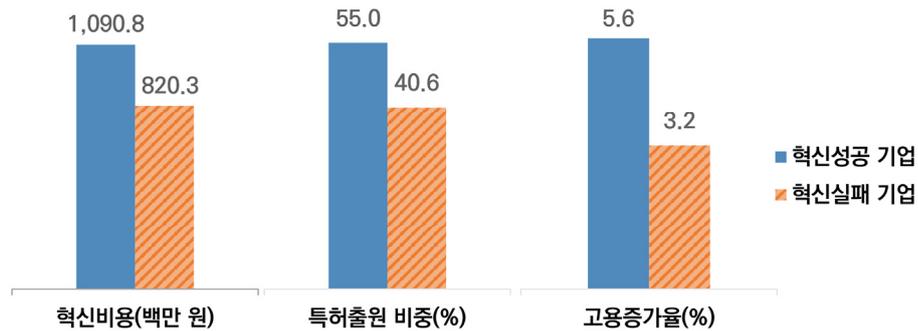


그림 9. 혁신성공 기업과 실패 기업 간 비교: 혁신비용과 성과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한국기업혁신조사」 원자료 분석

R&D기관과 정보 네트워크 구축은 혁신 달성의 핵심 요건

혁신에 성공한 기업은 협력 친화적이고 R&D 정보 접근성을 중요시

- 혁신성공 기업은 혁신활동을 진행할 때 다른 기관과 더 많이 협력
- 다른 기관과 협력 여부에 혁신성공 기업의 24.8%가 '예'라고 응답했지만, 실패 기업은 18.8%만이 그렇다고 응답

- 정보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성공기업은 엑스포·서적·협회 정보보다 컨설팅·연구소의 정보를 구득
 - 서울 혁신기업의 75.8%가 기업 외부와 정보 네트워크를 구동 중
 - 여러 정보 네트워크 중 활용빈도가 가장 높은 네트워크는 산업계 정보로, 전체 기업의 66.5%, 혁신 성공기업의 62.8%, 혁신실패 기업의 81.3%가 활용
 - 혁신성공 기업은 산업계, 컨설팅·연구소, 엑스포·서적·협회 등 다양한 채널로 정보를 구득 중이지만, 혁신실패 기업은 컨설팅·연구소 정보 네트워크가 매우 취약
 - 혁신성공 기업의 33.3%가 컨설팅·연구소 정보 네트워크를 구비 중인 데 비해, 실패 기업은 9.4%에 불과

표 1. 혁신성공 기업과 실패 기업 비교: 개방형 네트워크의 구축 현황

(단위: %)

구분		전체	혁신성공 기업 (A)	혁신실패 기업 (B)	A-B
다른 기관과의 협력 여부		23.6	24.8	18.8	6.0
외부 정보 네트워크 활용 여부	산업계 정보	66.5	62.8	81.3	- 18.5*
	컨설팅/연구소 정보	28.6	33.3	9.4	23.9**
	엑스포/서적/협회	36.7	34.9	43.8	- 8.9
	계	75.8	73.6	84.4	- 10.8

*p<0.05, **p<0.01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한국기업혁신조사」 원자료 분석

신생 기업은 자금과 인력 외에도, 협력파트너 문제 시정 요구⁶⁾

신생 기업일수록 혁신에 필요한 자원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개방형 혁신을 추구

- 신생 기업은 기술역량 부족, 자금 부족, 시간 제약 등의 문제를 외부 개방형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결 중
- 신생 기업이 다른 성장단계 기업보다 다른 기관과 R&D 협력을 더 많이 추진
 - 다른 기관과 협력 비중이 신생 기업은 28.0%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안정기 기업이 26.3%, 성숙기 기업은 18.3%
- 정보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신생 기업은 전반적으로 모든 정보 네트워크를 다른 기업보다 더 많이 가동 중
 - 신생 기업은 산업계 정보(80.0%), 컨설팅·연구소 정보(40.0%), 엑스포·서적·협회 정보(40.0%) 등의 활용률이 다른 성장단계 기업보다 모두 높은 수치
 - 성숙기 기업과 안정기 기업은 컨설팅·연구소 정보보다 엑스포·서적·협회 등 일반적인 정보교류를 더 많이 이용

표 2. 기업 성장단계별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 현황

(단위: %)

기업 성장단계		전체 (N=161)	신생기 (7년 이하)	성숙기 (8~14년)	안정기 (15년 이상)
다른 기관과 협력		23.6	28.0	18.3	26.3
외부 정보 네트워크 활용 여부	산업계 정보	66.5	80.0	68.3	60.5
	컨설팅/연구소 정보	28.6	40.0	20.0	31.6
	엑스포/서적/협회	36.7	40.0	38.3	34.2
	계	75.8	80.0	75.0	75.0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한국기업혁신조사」 원자료 분석

6) 기업 성장단계를 설립 이후의 기간으로 구분: 업력별로 신생기(7년 이하), 성숙기(8~14년), 안정기(15년 이상) 등으로 구분

기업 성장단계에 따라 혁신저해요인이 다소 차별적

- 기업은 공통적으로 1순위와 2순위의 혁신저해요인을 ‘자금 부족’(전체 기업의 33.8%), ‘혁신을 위한 우수인력 부족’(전체의 25.0%)이라고 응답
 - 1순위와 2순위의 혁신저해요인은 신생 기업이 다른 성장단계 기업보다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응답
 - 예로, 자금 부족은 신생 기업의 39.0%, 성숙기 기업의 33.1%, 안정기 기업의 31.9%가 경험했다고 응답
- 3순위 혁신저해요인에서 기업 성장단계별 경험의 차이가 존재
 - 성숙기(15.0%)와 안정기 기업(19.0%)은 ‘혁신 상품에 대한 시장수요 불확실성’이라고 응답
 - 신생 기업은 ‘과다한 혁신비용’(18.6%)과 ‘협력파트너의 부재’(18.6%)라고 응답
 - 신생 기업이 외부 네트워크나 다른 기관과의 협력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협력 파트너의 부재 문제는 신속한 해결이 필요

표 3. 기업 성장단계별 혁신저해요인

(단위: %)

저해요인	전체 (N=161)	신생기 (7년 이하)	성숙기 (8~14년)	안정기 (15년 이상)	
자금 문제	내부(귀사, 소속그룹) 자금 부족	33.8	39.0	33.1	31.9
	기업 외부(공공지원 및 민간 투자 등) 자금 부족	10.7	15.3	6.8	12.9
	과다한 혁신비용	12.7	18.6	6.0	17.2
기업 역량 요인	혁신을 위한 우수인력 부족	25.0	30.5	26.3	20.7
	기술에 대한 정보 부족	11.0	15.3	9.0	11.2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7.5	11.9	6.8	6.0
	혁신을 위한 협력파트너의 부재	12.0	18.6	9.8	11.2
시장 요인	독과점 기업에 의한 시장지배	3.9	6.8	2.3	4.3
	혁신 상품에 대한 시장수요 불확실성	16.2	13.6	15.0	19.0
필요 요인	3년 이전에 수행한 혁신 성과로 인해 추가적인 혁신 불필요	2.3	1.7	2.3	2.6
	혁신에 대한 수요 부족으로 혁신 불필요(OEM 포함)	7.5	11.9	6.0	6.9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한국기업혁신조사」 원자료 분석

오히려 신생 기업이 정책 지원에서 소외

정부지원의 최대 수혜자는 성숙기 기업, 신생 기업의 이용률은 낮은 편

- 전반적으로, 2011~2013년 전체 혁신 진행형 기업이 가장 많이 이용한 정부 지원은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34.2%)
- 그다음으로, ‘정부 연구개발사업 참여’(24.8%), ‘기술개발 조세감면’(23.6%) 순
- 신생 기업은 8개 정책 항목 중 오직 ‘기술인력 및 교육연구 지원’에서만 높은 지원 수혜를 경험
- 기술혁신 관련 8개 정책 항목 중 5개 항목에서 성숙기 기업의 활용률이 가장 높아, 혁신 정책의 최대 수혜자 그룹은 성숙기 기업으로 조사
- 혁신활동의 가장 직접적인 정책인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정부 연구개발사업 참여’ 등에서 신생 기업의 수혜율은 각각 28.0%, 12.0%로 평균(각각 34.2%, 24.8%)보다 낮고 성숙기 기업(각각 45.0%, 30.0%)에 견주면 상당한 격차

표 4. 지난 3년간(2011~2013년) 기업 성장단계별 정부정책 수혜 여부

(단위: %)

정부 정책	전체 (N=161)	신생기 (7년 이하)	성숙기 (8~14년)	안정기 (15년 이상)
기술개발 조세감면	23.6	16.0	26.7	23.7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자금지원)	34.2	28.0	45.0	27.6
정부 연구개발사업 참여	24.8	12.0	30.0	25.0
정부 기술지원 및 지도	8.7	4.0	8.3	10.5
기술정보 제공	6.2	0.0	3.3	10.5
기술인력 및 교육연구 지원	12.4	20.0	15.0	7.9
정부 및 공공부문의 구매	9.3	8.0	13.3	6.6
마케팅 지원	13.0	16.0	13.3	11.8

주: 음영은 신생기, 성숙기, 안정기 기업 중에서 해당 정부지원사업의 최대 사용빈도를 의미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한국기업혁신조사」 원자료 분석

IV. 정책제언

기업 다양성과 혁신 특성 고려한 맞춤형 정책 시행 필요

혁신 인증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 체계 수립이 필요

- ‘선택과 집중’ 원칙 아래, 일반 중소기업 지원과는 차별되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설계와 지원 강화가 필요
 - 일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신용보증, 세제 감면, 공공구매 등에 치중
 - 현재 R&D 지원도 대부분 중소기업 전체가 대상으로, ‘인증 제도의 무용론’ 제기
 - 혁신형 중소기업의 핵심인 R&D 과정에 지원을 확대할 필요
- 혁신형 중소기업의 내부 혁신목표와 기업 역량에 따라 혁신 고충사항이 다르므로, 기업의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
 - 현재 혁신 진행형/휴지기형 기업, 신생기/성숙기/안정기 기업 등의 유형을 고려하여 정책수요를 도출
 - 특히, 사업 실적에 관한 의구심으로 창업 직후의 신생 기업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의 해결 방안 마련

주요 추진전략

주요 과제	추진전략
인증기업 지원 강화	- 혁신집중기업의 식별 및 지원 강화 - 기술개발에서 네트워킹 등 다양한 정책수단의 확대와 혼용(mix)
맞춤형 지원 추진	- 혁신 성공률 제고를 위해 필요한 혁신자원 제공 - 기업 성장단계별 다양성을 고려한 지원 차별화
통합 플랫폼 구축	- R&D-사업화-마케팅-경영컨설팅 등의 연계 지원 - 공공·민간 지원기관, R&D 기관, 대학 간의 협력 플랫폼 구축

인증기업 지원 강화

혁신 집중기업의 식별과 지원 강화

- 혁신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을 선별하고, 해당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전략 수립
- 인증기업 중에서도 제품·공정 혁신을 집중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기업(2013년 기준 서울 인증기업의 52.3%)⁷⁾을 선별하여 지원
- 중앙정부에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특화 정책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서울형 스타기업과 유망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추가 정책을 설계하여 지원
- ※ 현재, 경기도는 글로벌 강소기업 이외에 ‘스타기업’, ‘유망중소기업’ 등으로 지원 대상 기업을 세분화하여 추가적인 지원정책을 시행 중

표 5. 혁신정도별 기업 유형화(경기도 사례)

기업군	기업 선정기준	지원사업	지원 내용
스타기업	매출 50억 원 이상, 연구소 운영, 주 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이 경기도에 있는 제조업 중소기업	지방강소기업 프로젝트	기술사업화, 마케팅 등 지원 (기업별 최대 1억 원, 기업부담 40% 이상)
글로벌 강소기업	매출 100억 원 이상, 수출 10% 이상, R&D 투자 1% 이상 경기도 내 소재 중소기업	지방강소기업 프로젝트	R&D, 해외마케팅, 지역자율프로그램(최대 3년간 8억 원 이내, 기업부담 50% 이상)
유망중소기업	중소제조업, 벤처기업, 신성장동력산업 등 2년 이상 기업 중 재무제표상 성장성, 안정성 등을 구비하고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	유망중소기업 프로젝트	금융융자(가점, 금리 추가 인하 등), 인증기업 마크 사용, 경영혁신/기술혁신/국제화 촉진 등 3개 영역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지원(컨설팅 위주)

주: 글로벌 강소기업은 중앙정부(중소벤처기업부)의 매칭사업임
 자료: 경기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청 홈페이지

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한국기업혁신조사」

혁신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의 다양화와 혼용

- 기술개발 자금과 보증에 집중하는 현재의 정책수단에서 더 나아가 기술개발부터 네트워킹까지 다양한 영역을 지원하는 정책수단을 설계
- 혁신형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자금뿐 아니라, 일시적 교류부터 안정적인 교류, 공동 R&D 사업, 인력양성, 정보교류 등 다양한 지원을 요구
- 기업과 대학,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상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와 정책수단 간의 혼용과 연계 필요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추진

혁신 성공률 제고를 위해 필요한 혁신자원 제공

- 혁신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이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쉽게 획득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 소규모 기업일수록, 그리고 새로운 기술혁신을 시도할수록, 기업은 연구개발 인력, 기술정보, 자금 등 혁신에 필요한 자원을 모두 구비하기 힘든 상황
- 기업마다 기업의 내·외부 자원 활용 능력과 필요성이 다르므로, 기업 유형별 내·외부 혁신자원 실태조사를 진행해 구체적 액션플랜 마련이 필요
- 혁신 성공률 제고를 위해 단순 개방형 네트워크가 아닌 R&D 네트워크가 구축되도록 지원 필요
- 혁신에 성공한 기업(기업의 33.3%)은 실패한 기업(9.4%)보다 컨설팅·연구소와의 네트워크를 더 많이 활용(표 1 참고)

- 협력파트너 연계사업을 설계할 때 ‘연구개발형’ 협력파트너를 쉽게 탐색하고 상호 프로젝트 체결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기업 성장단계별 다양성을 고려한 지원 차별화

- 신생 기업 지원의 양적 확대가 필요
 - 성과나 실적 중심의 사업 집행으로, 설립기간 14년 이하의 성숙기 기업이 신생 기업 보다 오히려 정부지원을 많이 받는 상황
 - 신생 기업에 대한 전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선정 기준을 완화하여 신시장을 개척하는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혁신활동을 지원
- 신생 기업에는 협력파트너를 연계해주고, 성숙기·안정기 기업에는 시장수요의 불확실성을 감소해주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 모든 기업이 혁신의 어려움으로 ‘자금’이나 ‘인력’ 부족을 언급하므로 이에 관한 지원 정책을 시행
 - 동시에 신생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외부 기관과의 협력 및 정보 의존이 중요하므로, 신생 기업에는 협력파트너와 R&D 기관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
 - 성숙기·안정기 기업은 3순위 혁신저해요인을 혁신 상품에 대한 시장수요 불확실성으로 인식하므로 이 리스크를 줄여주는 컨설팅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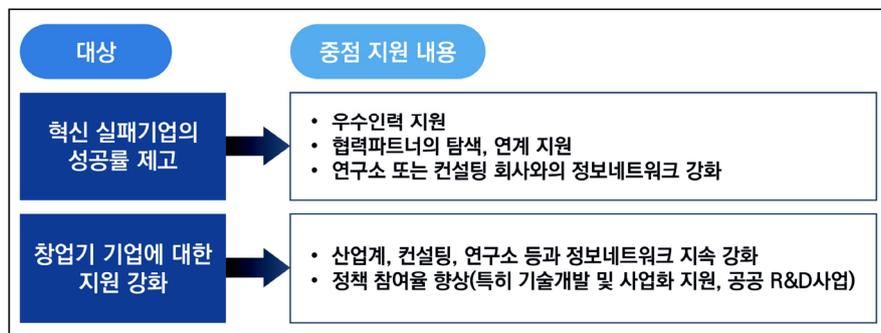


그림 10. 기업 유형별 중점 지원 내용

R&D부터 경영지원까지 통합 플랫폼 구축

R&D-사업화-마케팅-경영컨설팅 등의 연계 지원 강화

- 기업의 혁신활동이 최종 결실을 맺도록 신제품이나 특허 등의 기술적 성과가 경제적 성과로 연결되도록 지원
- 기술개발 성과가 무사히 사업화되어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벤처캐피털 등의 투자지원과 마케팅 등을 연계하여 혁신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건널 수 있도록 지원
- 서울시의 서울기업지원센터(SBSC) 기능을 확대하여 현재의 일반 중소기업 지원(불공정거래, 규제 민원, 단순 경영정보 제공 등)에서 혁신기업에 필요한 협력파트너 연계, 투자 연계, 마케팅 연계 등의 사업을 추진

서울시-공공·민간 지원기관, 대학·연구소 등과의 협력 플랫폼 구축

- 서울의 다양한 산업지원기관 간 연계에 기반을 둔 협력 플랫폼을 구축
- 서울에는 서울디지털재단,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다양한 기업 지원 기관이 존재
- 일차적으로 혁신형 중소기업 대상 원스톱 지원을 위해 서울시와 공공지원기관의 관계를 체계화할 필요
- 서울시에서 사업 구상, 예산 편성 등 지원계획을 기술개발영역부터 일반 민원까지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그다음에 개별 전문 지원기관이 상호연계 운영되도록 설계
- 공공기관의 전문적 실행을 바탕으로 기업이 다른 민간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형성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는
서울연구원 홈페이지
www.si.re.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twitter.com/seoulinstitute
www.facebook.com/SeoulInstitute